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전담신부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주일미사 오후 3시	고해성사 오후 2시 30분	성당주소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전화 0490-795-346	카카오 채널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5번>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폴더 13번> 마음을 드높이	<폴더 14번> 임마누엘	<폴더 1번> Christ Be Our Light

입당송 | 이사야서 30,19.30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 1독서 | 이사야서 11,1-10

화답송 |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 (좌)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우)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좌)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 (우)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

제 2독서 | 로마서 15,4-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굳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오 3,1-12

<1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분쟁 지역의 그리스도인들

전쟁이나 분쟁 지역, 특히 중동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의 복음 - 마태오 24,37-44

1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2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3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4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6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7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려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8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교부들의 성경주해 - 요한 크리소스토모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요한은 '도끼가 나무뿌리에 닿으려 한다'가 아니라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닿아 있고, 나무가 찍히는 일이 미루어질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도끼가 그렇게 가까이 와 있지만, 나무가 잘려 나가고 아니고는 너희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아서서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이 도끼는 옆으로 치워져 나무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처럼 산다면, 도끼는 나무를 쓰러뜨려 뿌리째 뽑히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도끼는 여전히 뿌리에 닿은 채로 있지만 성급히 뿌리를 찍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요한은 사람들이 망설이고만 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변화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바랐습니다.

- <마태오 복음 강해> 11.3.12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에 얼마나 훌륭한 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는 서슴없이 청중을 놀라게 하고 불안에 떨도록 만들며 더없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회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로 다음 말은 온화합니다. 그는 도끼에 찍히고 불에 던져져 타는 나무, 다가올 분노만 강조하지 않고, 죄의 용서와 별의 면제, 의로움, 성화, 구원, 하느님의 자녀 됨과 공동체, 상속자가 되는 것과 성령이 넉넉히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말에는 이 모든 치료 약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은 넘치는 은총에 대해서도 같은 식으로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거룩한 은총의 제어할 수 없는 폭발적인 힘을 똑똑히 드러내고자 이 말에 '불로' 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 <마태오 복음 강해>, 11.4



“인생의 늦은 시기에 저는 지나온 수십 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갖 좋은 선물을 베풀어 주는 분이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양한 혼란의 순간에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미끄러져 넘어질 때마다 언제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당신 얼굴의 광채를 늘 새롭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여정에서 어둡고 지친 기간들도 저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하느님께서 바로 그 안에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습니다.”

제대: 성전의 중심



제단 안에 하느님의 백성이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제대가 위치합니다. 제대(altare)는 라틴어 ‘altus(드높인)’에서 유래하는데,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드높인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제대에 내려오시고, 인간은 제대를 향합니다.

일찍이 암브로시오 성인은 제대에 대해 “제대는 그리스도의 성체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체는 제대 위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했고,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제물이시고 사제이시며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제사를 위한 제대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는 “제대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성사적 표지로 재현되는 곳이며, 미사에 모인 하느님 백성이 다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식탁이다. 또한 제대는 성찬례로 이루어지는 감사 행위의 중심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가르치며 제대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96항).

제대는 신앙의 원천이자 정점인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자리이자 하느님과 하느님 백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당의 중심입니다. 제대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면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올 때, 혹은 머물면서 예수님을 마주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제대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 Fr.배재영 안토니오

<2025년 & 2026년 사목회>

그동안 우리 성당을 위하여 봉사해주신 사목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례분과: 김수현 수산나, 사회복지분과: 김수연 베로니카, 재정분과: 이상명 다니엘,

요한반: 김미현 보나, 루카반: 허준 안토니오, 마르코반 김희진 아델라, 마태오반: 최원미 클라라

내년 사목회에 함께해 주시는 다음 사목위원들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례분과: 안윤경 소화테레사, 사회복지분과: 서미숙 루피나, 재정분과: 이상명 다니엘,

요한반: 이영란 글라라, 루카반: 주정자 루치아, 마르코반: 고준호 사도요한, 마태오반: 최민식 마르첼리노

공지 사항

1. 대림시기 고해성사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는 고해성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고해성사를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2. 2026년 달력

2026년 달력을 성전 입구에서 나누어드립니다. 이번 달력은 벽걸이(호주 공휴일 포함)와 탁상 달력(한국 공휴일만)으로 2가지 종류를 마련하였습니다. 2가지 중하나를 선택하시어 1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림시기 자선 바자회

자선은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에서는 자선 바자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물품이나, 쓰지 않고 있던 물품들을 있다면 성당 교육관으로 기부 부탁드립니다.

*** 12월 14일: 주일 미사 후, 자선 바자회**

| 여정 '시즌 6' - 영적 독서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 '기도의 체험' : ~ 138p
- '굽어 돌아가는 하느님의 길' : ~ 159p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미사 후 뒷정리 |

이번주 (12월 7일)	마르코반
다음주 (12월 14일)	마태오반

*** 손님 신부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늘 캔버라 성당을 방문해주시고, 미사를 함께 봉헌해 주신 '조수환 바오로' 신부님 환영합니다!

4. 성탄대축일 미사 안내

*** 12월 24일(수)**

- 6:00pm: 성탄대축일 밤 미사 (영어)

장소: St. Matthew' Church, Page

- 9:00pm: 성탄대축일 밤 미사 (영어)

장소: St.Vincent's Church, Aranda

*** 12월 25일(목)**

- 3:00pm 성탄 대축일 미사 (한국어)

5. 새해맞이 성체 조배 및 성시간

- 일시: 12월 31일(수), 11:00pm-12:00am

- 장소: St.Vincent's Church, Aranda

* 작년과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하느님 사랑과 기도 안에서 고요히 맞이하고자 합니다.

| 봉헌금 & 교무금 | (11월 29일 ~ 12월 5일)

봉헌금	\$ 215				
교무금	\$ 745				
구민식	권묘순	김천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정은영	주정자	
최현주	황병옥	허준			

| 기도 지향 |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故 권정열 형제님을 위해
- * 이근화 프란치스코 형제님 건강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